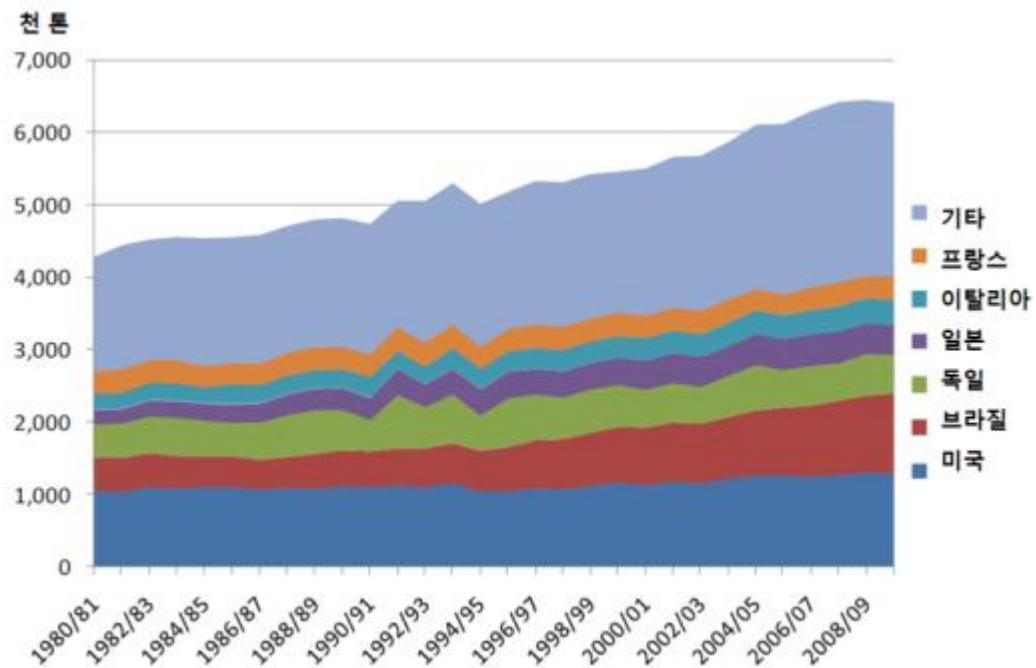


□ 소비동향

- 커피생두의 소비량 상위 5개국은 미국, 브라질, 독일, 일본, 이탈리아임.
- 최근엔 신흥국의 소비 확대가 현저하며 브라질의 소비량이 1980/81년 46만 톤에서 2009/10년에는 110만 톤으로 65만 톤 증가.
- 게다가 2000년 이후 인도네시아가 10만 톤, 베트남이 7만 톤 증가. 러시아도 2003년 이후 8만 톤 증가.
- 2009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소비량은 룩셈부르크가 27.4kg으로 가장 높았고, 뒤이어 북유럽 국가는 10kg을 기록.
- 다음으로 미국은 4.1kg, 브라질은 5.7kg, 일본은 3.4kg을 소비.

< 주요 소비국 별 세계 커피 원두 소비량의 변화 >



출처: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(2010)(2013. 1. 18)

< 일본의 커피 소비량 >

(단위: 천 자루)

구 분	2008	2009	2010	2011	전년대비 증감률(%)
총 소비량	132,956	132,464	137,150	137,900	0.5
일 본	7,065	5,130	7,192	7,015	-2.5

출처: ICO, Monthly Coffee Market Report (2013. 1. 18)

- 일본의 커피 소비량은 2011년 7,015자루로 전년대비 -2.5% 감소.
- 일본은 커피의 수출국과 기존시장, 신흥시장 중 통틀어 상위 4위에 등극한 거대한 소비 시장